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실천하지 못하는 공부는 허탕

우리가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더더욱 과학을 연구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실천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모든 게 허탕한 일이니까요. 컴퓨터 학교를 만든다든가 또 대학에 한 팀이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거고, 하여튼 여러분께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구석구석, 살아나가면서 하나 하나 어떠한 문제라든가 그 컨걸 위해서 진실을 서로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정의로서 반듯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만약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공서 끌어오는 에너지

예전에 어느 스님이 5층 층층대를 올라가는데 올라와서는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올 때 애썼다고 하고 또 내려와서도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뒤뚱거리고 애를 썼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깐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얕고 이상해서 그런 생각을 잘 한다 이런 소립니다.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야 어려움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모를 모시는 데도 어떤 집에서는 항상 똥을 누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노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하죠. 이전에는 집집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지금은 병원으로 가서 저거 하지만 예전엔 집에서 모시는데 벽에다가도 똥을 발라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시는 것도 즐창 모신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지루하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지금 모시고선 고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모시거든요. 그러니깐 지루하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한다는 게 없이 했더랍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할 게 없습니까?

▲질문자1: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본래 부산에 있다가 대구로 와서 처음으로 대구 지원 법형제에 소속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구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스님께서 법문 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아직 궁금한 점이 많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구가 아니고 다른 별에 대한 살림살이들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항상 법문을 하시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스님: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자1: 그 부분을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스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제는 옷을 벗고 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바깥에서 보물을 구하러 도둑이 들었더랍니다. 도둑이 한 대여섯 명이 들었는데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그냥 다섯으로 화해서 전부, 쭉 그 스님 앞에 하얀 가사 장삼을 수하고선 두런두런 앉아 계시거든요, 주장자 하나씩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다가 너무나 놀라서, 그냥 빈방인 줄로만 알았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쭉 앉아 계시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놀라서 가만가만히 그냥 되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못하고 나갔대요. 그런 연에 스님은 가셨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한번 큰 색경을 놓고선 여러분 자신을 비춰 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마주 보일 테죠. 그런데 하나만 마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이가 열 개가 앞에 딱 놓여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스스로서 이해가 가서 알게 되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가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귀하기도 하고 아주 천박하기도 하죠. 얘기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번연히 아는 것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를 해서 안 되는 일, 얘기를 해서 되는 일, 식구들이 모두 싸움이 일어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둘러서 말을 잘 해서 무마시키려니까 참 힘이 드는데 지혜가 있으면 힘들지 않고 원만히 잘 넘길 수 있다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을 동시에 둘로 보지말고 하나로 보고서 우리가 닦아 나가면은 그대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다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자불이라고 하면 자기 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위로 섬기게 돼서 가깝게 생각하지 않을 까봐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내려보지도 말고 올려보지도 말고 항상 둘이 아니게 친근하게 같이 할 수 있다면 설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친구처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일이 생겨도 "너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을 때에 그게 다 무마가 되고 막아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림 · 최주현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없어야 편안

불성 둘로보지 않고 닦을 때 알수 있어

당장 밥을 굶게 되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깐 아주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질문자1: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대법회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질문은 한 서너 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들을 스님께서 점을 찍으시고 따로 챙겨 주시는 부분이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챙겨주고 안 챙겨 주고가 없이 챙겨져요 그냥. (대중웃음) 하하하.

질문자1: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법형제 법회가 토론회가 돼서 스님과 더불어 이와 같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질문자2: 저는 간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스님을 친견한 한 대구지원법형제 회원입니다. 조상님께서 절 앞에 묘를 썼던 이야기도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간이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은 논에 양수기 모터에 감전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강산도 푸르고 하얗구나!"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꿈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얘기죠.

▲질문자2: 예. "금강산도 푸르고 하얗구나!" 하셨습니다.

색경놓고 자기 비춰 보라

▲스님: 예. 푸르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삶의 생명체고 흰 거는 벗어났구나 하는 소립니다.

▲질문자2: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스님: 그걸 따지고 보면 아버님은 아주 공부하시면서 가신 모양이네요.

▲질문자2: 오늘은 산혈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스님께 여쭙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예천군에 있습니다. 내성천이란 강이 내려오다가 다시 강물이 위로 2~3천 미터 올라가다가 구비 쳐서 낙동강으로 합류합니다. 그 형상이 용이 머리를 들고 위로 승천하는 형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두부 자르듯 잘려 있습니다. 황토 물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잘리는 순간에 그 황토 물이 석 달을 흘렀다고 하여 용의 피가 석 달을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라는 중국 장수가 조선 땅 산천을 보니 인재가 많이 난다고 하여 명산에 혈을 끊고 높은 산은 쇠말뚝을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산혈을 끊고 쇠말뚝 박은 거와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나는 거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법문 청하옵니다.

▲스님: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런 문제가 많았죠. 조선의 산에는 어느 산이든지 좋은 산은 다 쇠를 박았답니다. 쇠를 박았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뽑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뽑을 수 없는 거를 함이 없이 뽑으면 되지 않나? 하구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문자2: 예. 그렇게 산혈을 끊어버리고 혈을 끊은 건 어떻게 됩니까?

▲스님: 산혈을 끊으면 요 다음에, 산혈이 끊어졌으면 생산처가 안 되죠. 사람이 나질 않죠.

▲질문자2: 강물이 쫙 내려오다가 용을 틀고 다시 쫙 올라갔는데 중간을 끊어 가지고 그 해 황토 물이 석 달을 흘렀다고 하여 피가 석 달을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장수가 삼각산의 혈을 찌르러 가다가 삼각산 초입 동이한테 혼이 나서 중국으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스님: 글쎄 그거는 우리가 생산처에서, 그게 끊어지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일제 시대 때고 임진왜란이고 어느 때든지 구석구석에 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질문자2: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됐어도 그 시대에만 그렇지 되살아서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어져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3: 제가 3월 달부터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석 달이 됩니다. 스님의 법문은 아직 너무나 어렵고 저 같은 중생은 언제 깨우칠지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 두분 오다가 관두고 너무나 높은 법문에 이해가 빨리 안되고 마음은 바쁘고 이래서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이 초심자가 어렵지 않고 힘은 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스님: 지금 저 앞서 질문하고 가신 분도 그렇고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면 듣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그냥,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쉽고 어렵지 않게 다 일러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걱정 없이 살라고요.

▲질문자3: 스님께서는 모든 걸 주인공한테 놓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 라고 말씀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와 닿는 것은 멀기만 한 얘깁니다. 이런 높은 법문을 좀더 쉽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자가 가는 길이 어느 정도까지는 고행과 힘이 들더라도 참고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이 사회에 너무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퇴폐하게 각 가정마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젊은 지성인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회풍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은 그 자체가 공부하는 절, 다른 신도들이나 타 절의 스님들께서 한마음선원에 다닌다 하면은 상당히 공부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공부하는 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음선원을 앞으로 스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일반 학교처럼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을 양성하고 앞으로 이 한마음공부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에 불성도 있어

▲스님: 그래서 이렇게 내 몸 아닌 내 몸들이 이렇게, 스님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곡하면은, 자기 마음이 어지럽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극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지극하고 진짜로 못 믿는다면,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지극하지가 못 하죠.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회사를 하는데도 쉿덩어리지만 쉿덩어리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 쉿덩어리더러 그랬답니다. "너도 남이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서 고칠 수도 없이 만들면 어떻게 하니?" 하고 아주 사정을 했답니다. 사정을 하니깐 그 이튿날부터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질문자3: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너무나 수준이 안 맞는 낮은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한마음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나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 질문을 아니 올릴 수 없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으신 저희 모친은 스님께 누가 안 되는 질문을 하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집사람은 차 타고 오는데도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나중에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은 이 질문을 올림으로써 제가 한마음공부에 한층 매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님의 판단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투놀이 때문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모임이 끝나면 이 놀이를 하는데 이거만 쥐면은 시간가는 줄을 모릅니다. 세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밤샘을 여사로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문지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은 안하고, 장관들도 하고, 장군들도 하고, 대학교수들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하고, 가정주부들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유원지에 가면은 식당 방마다 서너 명만 모이면 하고, 휴가철에 좋은 골짜기에 가면 다 그늘에서 하고, 대한민국에 70~80%는 여기에 전부 정신을 팔고 있습니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